

Briefing

발행일 2025. 6. 15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발행인 김영진

주소 대전 유성구 전민로 37 tel. 042-530-3500 fax. 042-530-3528

대전의 외국인력 부족 현황과 시사점¹⁾

경제사회연구실 양준석 책임연구위원

논의 배경

- 생산가능인구 부족에 따른 대응으로 외국인력 활용의 중요성 증대
 -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인구의 71%를 차지한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2052년에는 2천380만 명으로 51%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
- 대전시의 노인 인구 비중은 2002년 5.9%에서 2024년 17.2%로 증가해,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 점차 가시화
 -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의 외국인력 현황과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

데이터 및 분석방법

- 고용노동부의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전의 산업별·직업별 외국인력 부족 현황을 파악
 - 이 조사는 반기별로 종사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현원, 부족인원, 채용계획인원 등을 조사하여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고용 정책 기초자료 및 정책개발 등에 활용
- 대전에 소재한 사업체의 외국인력에 대한 부족인원, 미충원인원, 인력 부족률, 미충원률 등을 계산하여 외국인력 부족 현황을 파악²⁾
 - 외국인력 부족률은 현재 사업체에서 외국인력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를 반영하는 지표로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와 수요를 설명
 - 미충원률은 사업체가 채용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비율을 나타내는데,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임금 미스매치, 인력 매칭 실패 등)로 인한 수요(사업체)와 공급(외국인력)의 격차 의미

대전 외국인력 부족인원 현황

현황

- 2022년 상반기에서 2024년 하반기 동안 대전의 외국인력 부족인원은 총 950명으로 집계
 - 부족인원은 2023년 하반기 217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가장 최근인 2024년 하반기에는 71명을 기록
 - 인력부족률은 최대 5.14%에서 최소 1.55%를 기록했으며 최근 3개년 합계는 3.80%로 나타남
- 같은 기간 외국인력 미충원인원은 281명을 기록했으며, 2022년 하반기 174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2024년 하반기는 5명에 불과
 - 미충원률은 2022년 하반기 19.30%에 달했으나 이후 기간에서는 대략 1%~8% 수준에서 변동

표 1. 대전 연도별 외국인력 현황

(단위 : 명, %)

구분	현원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인원	부족인원	인력부족률	미충원율
2022 상반기	3,217	283	278	5	119	3.58	1.84
2022 하반기	3,769	899	726	174	204	5.14	19.30
2023 상반기	3,655	531	514	18	142	3.73	3.35
2023 하반기	4,373	676	643	33	217	4.72	4.90
2024 상반기	4,560	600	553	47	197	4.14	7.79
2024 하반기	4,499	770	765	5	71	1.55	0.66
합계	24,073	3,759	3,478	281	950	3.80	7.49

*자료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부

1) 본고는 2025년 수행 중인 정책과제 「대전시 기업체 외국인력 수요조사」의 일부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이다.

2) - 부족 인원 : 채용여부나 채용계획과 무관하게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시설의 가동, 고객의 주문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보다 더 필요한 인원 수

- 부족률 = 부족인원/(현원 + 부족인원) × 100

- 미충원인원 : 구인인원에서 채용인원을 제외한 인원

- 미충원률 = 미충원인원/구인인원 × 100

산업별 현황

- 외국인력이 부족한 산업은 '제조업'(599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28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28명)으로, 이 세 업종이 전체 부족인원의 약 90%를 차지
 - 특히 '제조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외국인력 부족률이 각각 8.43%와 37.30%를 기록하여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
 -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외국인력 채용인원이 469명으로 높은 수준이나 부족인원은 20명, 부족률은 1.27%에 불과하여 외국인력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원활

표 2. 대전 산업별 외국인력 현황

(단위 : 명, %)

구분	현원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인원	부족인원	인력부족률	미충원율
광업	2	-	-	-	-	-	-
제조업	6,508	843	625	218	599	8.43	25.88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47	9	9	0	23	13.73	0.00
건설업	3,971	1,356	1,356	0	19	0.47	0.00
도매 및 소매업	1,126	23	23	0	18	1.57	0.00
운수 및 창고업	9	8	0	8	-	0.00	100
숙박 및 음식점업	1,553	469	431	39	20	1.27	8.25
정보통신업	344	17	17	0		0.00	0.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362	362	348	13	128	3.66	3.6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822	310	310	0	-	0.00	0.00
교육 서비스업	5,722	355	351	3	15	0.27	0.9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15	6	6	0	128	37.30	0.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1	2	2	0	-	0.00	0.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34	-	-	-	-	-	-
합계	24,073	3,759	3,478	281	950	3.80	7.49

*자료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부
주 : 2022년 상반기~2024하반기 합계

직업별 현황

- '제조 단순직'(329명), '돌봄 서비스직'(128명), 경영·행정·사무직(118명),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100명) 등이 외국인력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

- 미충원 인원이 많은 직업은 '제조 단순직'(136명)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구인기업과 외국인력 간 임금 미스매치, 숙련도 불일치 등이 미충원 인원의 주요 원인으로 추측

표 3. 대전 직업별 외국인력 현황

(단위 : 명, %)

구분	현원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인원	부족인원	인력부족률	미충원율
경영·행정·사무직	417	25	25	0	118	22.03	0.00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2,081	188	188	0	1	0.07	0.00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1,369	135	121	13	26	1.89	9.79
교육직	5,048	349	345	3	15	0.30	0.95
음식 서비스직	1,491	468	429	39	20	1.32	8.27
돌봄 서비스직 (간병·육아)	169	38	38	0	128	43.05	0.00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273	7	7	0	10	3.62	0.00
영업·판매직	891	32	32	0	20	2.21	0.00
운전·운송직	390	233	225	8	-	0.00	3.44
건설·채굴직	3,770	1,311	1,311	0	19	0.50	0.00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1,088	138	106	32	83	7.07	23.44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1,333	182	137	45	100	6.97	24.52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373	55	55	0	20	4.98	0.00
섬유·의복 생산직	316	38	33	5	25	7.26	13.54
식품 가공·생산직	497	40	40	0	12	2.38	0.00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387	41	41	0	24	5.84	0.00
제조 단순직	2,710	409	273	136	329	10.84	33.29
합계	24,073	3,759	3,478	281	950	3.80	7.49

*자료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부
주 : 2022년 상반기~2024하반기 합계

■ 사업장 규모별 현황

- 사업장 규모가 커질수록 외국인력의 부족률도 낮아지는 경향
 - 5인 미만 사업장의 인력부족률은 13.96%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상 규모에서부터 점차 완화
 - 미충원율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8.6%로 가장 높은 수준
 - 즉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음에도 임금, 고용조건 등의 불일치로 외국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

표 4. 대전 사업장 규모별 외국인력 현황

(단위 : 명, %)

구분	현원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인원	부족인원	인력부족률	미충원율
5인 미만	2,347	880	716	164	381	13.96	18.63
5~9인	1,726	342	342	0	95	5.21	0.00
10~29인	8,160	1,031	990	41	277	3.28	3.96
30~99인	3,294	438	388	49	116	3.40	11.27
100~299인	2,536	700	686	14	71	2.73	2.03
300인	6,009	369	356	13	10	0.17	3.57
합계	24,073	3,759	3,478	281	950	3.80	7.49

*자료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부

주 : 2022년 상반기~2024하반기 합계

- 기업체가 원하는 외국인력 사무직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직무(e.g. 해외 네트워크, 해외시장 분석, 해외판로 개척 등)에 대해 추가적 조사 필요
- 미충원 인원이 많은 직업은 '제조 단순직',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음식 서비스직',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등으로 조사
- 전반적으로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외국인력에 대한 인력부족률과 미충원율이 높아지는 패턴
 - 영세 사업장은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 높은 노동 강도 등으로 외국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으로 해석
- 이를 종합하면, 대전의 외국인력 수급 문제는 산업과 직무 특성, 그리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획일적 대응으로는 한계
 - 특히, 제조업과 같이 노동 강도가 높은 산업과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되어 정책적 대응 필요
- 따라서 대전시 외국인력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산업별·규모별 수요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이 요구
 - 근로환경 및 고용 여건 제고: 외국인 근로자가 기피하는 사업장의 임금, 복지, 근무여건 등 개선
 - 직무별 맞춤형 인력 매칭 지원 : 언어 능력, 직무 숙련도 등을 고려한 외국인력 매칭 체계 마련
 - 지역 내 인력 중개 기능 확대: 외국인력과 구인기업 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지역 기반의 중개 시스템 보완
 - 외국인력 활용성 제고 방안: 돌봄, 사무직 등 외국인력 수요가 높은 직무에 적합한 비자 제도 및 정책 수단 검토

시사점

- 대전에서는 제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외국인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
 - 이 산업들은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외국인력 수급의 불안정성이 생산성과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
- 외국인력의 채용을 계획했으나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미충원 인원이 많은 산업으로는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확인
 - 구인기업과 외국인력 간 임금 수준, 직무 숙련도, 근무환경 등의 불일치가 미충원 인원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
- 직업별로는 '제조 단순직',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경영·행정·사무직',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등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로 노동 강도가 높은 직업에서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으나, 사무직에 대한 수요도 꽤 많은 것으로 조사